

삼푸 12.5%·영양크림 13%·남성용 팬티 18%·선풍기 29% ↑

# 생필품 1년새 너무 올랐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전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화장품과 옷값은 급등해 서민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4개월째 2%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화장품과 섬유 제품은 각각 5.2%와 6.5% 올랐다. 내구재도 5% 상승했다. 경제 위기로 실질 소득이 거의 늘지 않은 가운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의 생활고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필수품인 화장품은 영양크림이 전년 동월 대비 12.8%가 올랐

고 삼푸(12.5%), 화장수(6.3%), 파운데이션(5.3%), 립스틱(5.2%), 클린징크림(3.8%)도 많이 올랐다. 그나마 화장품 가운데 가격이 내린 품목은 페이스파우더와 선크림이었으나 각각 0.4% 하락에 그쳐 사실상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섬유제품의 경우 러닝셔츠가 전년 동월 대비 18.4%나 올랐다. 남자팬티(18.1%), 여자재킷(13.7%), 남자재킷(12.4%), 여자정장(12.0%), 여자팬티(10.7%), 여자코트(10.2%)도 1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이어 남자 내의(9.7%), 여자 내의(9.3%), 드레스 셔츠(9.1%), 여자화

생복(8.9%), 장갑(8.2%), 남자학생복(8.0%), 남자셔츠(7.5%), 치마(7.3%), 티셔츠(7.2%), 아동복(6.9%), 운동복(6.6%), 여자바지(6.2%)도 크게 올랐다. 내구재는 선풍기와 금반지가 각각 29.2%와 29.0% 상승했으며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자전거도 16.1%나 급등했다. 피아노(15.6%), 프린터(14.1%), 전기밥솥(12.4%), 전기면도기(11.4%), 식탁(11.2%), 거실장(8.7%), 의자(8.2%), 난로(7.6%), 전자사전(7.5%), 전자레인지(7.0%), 장롱(6.4%) 등도 물가 상승세가 컸다.

이밖에 가공식품 중에는 북어복(32%), 쌀(25.5%), 카레(18.9%) 등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으며 의약품은 피로회복제(15.6%), 공공서비스는 택시요금(14.0%), 한방진료비(12.2%) 상승세가 뚜렷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월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업 제품 가격 등에 상승할 요인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로 볼 때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급등한 품목에 대해선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심 찾은 산타와 루돌프** 에버랜드가 새로운 테마 공간인 '크리스마스 에비뉴'의 오픈 기념행사를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산타와 루돌프 등의 인형을 쓴 에버랜드 공연단의 공연을 보고 있다. '크리스마스 에비뉴'는 에버랜드에 마련된 500여m 길이의 테마 공간으로 200만 개의 전구와 10m 높이의 대형 트리도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주가상승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정몽구'

지분증가액 2조원 넘어

올해 들어 주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벌닷컴이 올해 들어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지분 평가액 증감 현황을 2일 증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지분가치 순증가액이 1천억원 이상을 기록한 주식 부자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장사 주식부호 선두를 다투는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들어 상장사 지분가치가 각각 2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 전 회장은 연초 주식지분 가치가 1조3천560억원에서 3조8천351억원을 기록, 올해 2조4천790억원이 늘어나 최고 증가액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보통주 224만5천525주와 우선주 1만2천398주 등을

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 회장 역시 보유지분 평가액이 4조2천49억원으로 상장사 주식 부자 1위를 차지했으나, 연초 대비 증가액은 이 전 회장에 400억원이 부족한 2조4천390억원을 나타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11일 SK C&C를 상장하면서 연초 989억원이던 상장사 지분가치가 1조49억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보다 9천60억원이 늘어나 증가액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은행 환전 수수료 최고 70% 할인

은행들이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환전 수수료를 깎아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3일 환전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최고 70%까지 깎아주고 경품을 제공하는 '고객 감사 알뜰환전 페스티벌'을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외여행과 유학 및 어학 연수를 목적으로 환전하는 모든 고객이 대상이다. 미 달러화와 일본 엔

화, 유로화의 경우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하는 30%, 미화 2천 달러 상당액 이하는 50%,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하와 초과는 각각 60%와 70%를 할인한다. 기타 외화는 금액에 따라 20~35% 할인해준다. 외환은행도 내년 2월 말까지 '러브 환전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하는 모든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 光銀 '그린 목요일'

친환경 상품 가입엔 금리 우대 혜택

광주은행이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을 '녹색의 날'로 정하고 친환경 녹색 캠페인과 함께 녹색 금융상품 가입 고객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등 녹색경영을 본격화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3일 오전 9시 본점 영업부에서 녹색성장 녹색금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번 달부터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을 'KJB 녹색의 날(Green Day)'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본점 영업부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녹색 베타이와 녹색 리본 타이틀 매주고 이날 녹색금융 상품에 처음으로 가입한

고객과 대출자에게 각각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KJB 녹색의 날'은 이름에 맞게 푸른 나무를 상징하는 목(木)요일로 정했으며 이날은 광주은행 전 임직원들이 녹색 넥타이와 녹색 리본 타이틀 매고 고객들을 맞이한다. 또 매달 'KJB 녹색의 날'에 광주은행의 녹색에 금 상품인 '그린스타트 예금'에 가입하면 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KJB 그린론' 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출금리를 0.1% 인하해 준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7월에 녹색금융 선포식을 갖고 탄소



광주은행 직원들이 3일 본점 영업부에서 첫번째 녹색의 날을 맞아 녹색 넥타이와 리본을 매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링크드, 그린스타트 예금, KJB 그린론 등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 금융 상품인 그린스타트예금의 경우 경차나 친환경 자동차 보유 고객이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로 서약한 고객 등에게 0.1%의 금리를 더 주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정림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혁신점 (063) 851-242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정림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혁신점 (063) 851-242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정림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혁신점 (063) 851-2422